

特殊圖書館의 諸問題

— 交通公務員教育院圖書館을 中心으로 —

李 鍾 禧

(交通公務員教育院 圖書館長)

<目 次>

序 言

官廳圖書館

交通部 全體의 圖書館

新規採用 單

特殊報酬制度

圖書館의 獨立

圖書館에 對한 沒認識

序 言

屢次 自白해 오는 바이지만 나는 圖書館經驗이 不過 4年 밖에 되질 않는다.

거기다가 圖書館學에 關한 어느 特殊分野의 專攻도 가지질 못했다.

經驗과 理論이 다 같이 淺薄한데 어찌 敢히 標題와 같은 問題를 들고 나와서 容喙할 수 있겠는가.

以上이 나의 率直한 內心的 告白이다.

그러나 이 題目을 그렇게 嚴格하게만 다루지 않는다 면 전혀 할 얘기가 없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

단 하루를 圖書館에서 살았어도 하루 동안의 圖書館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틀을 살았으면 이틀 동안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式으로 아주 가볍고 自由스럽게 本論稿를 다루어 본다면 오히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은 지도 모를 일이다.

交通圖書館 4年 동안의 지난 얘기를 모조리 빼 놓지 않고 털어 놓을 양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지겹고 민망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설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염치없이 무턱대고 된 소리 안된 소리 全部를 남이야 싫어하진 말진 지결여 臆만한 두꺼운 心臟을 지니지도 못한 爲人이고 보면 여기에 暫時 小苦 憫이 없는 바도 아니다.

애걸 하자니 ամ만해도 辛겉기 짝이 없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시한 얘기꺼리들 뿐이요. 안 하자니 이미 애걸 하기로 작정하여 나온 이 마당에 그냥 우뚝 하니 장승마냥 서 있을 수 만도 없는 일이고 보면 어쩔 수 없이 若干의 苦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讀者 여러분은 이쯤 제 立場을 좀 諒解해 주시고 이 글을 보시려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官廳圖書館

우선 우리 交通圖書館의 來歷부터 暫時 말씀드려 보기로 한다.

1920年 7月 21日 지금으로부터 約 46年前에 設立되 었다.

그 동안의 經緯를 解放前後로 나누어서 整理를 해보 기로 한다.

<解放前>

1920年 7月 21日 南滿洲鐵道株式會社(朝鮮國有鐵道 를 同社에서 委託經營)에서 經營하는 京城鐵道學校內 에 圖書館을 創設하여 從業員의 業務參考, 從業員과 家族의 教養 및 讀書獎勵를 爲한 圖書館으로 名稱을 滿 鐵京城圖書館이라 하여 開館하였다.

1923年 6月 5日 滿鐵社內 機構改革으로 京城鐵道局 이 設置됨에 따라 圖書館을 鐵道學校로부터 分離시켜 鐵道局直屬으로 하였다.

1925年 4月 1日 朝鮮國有鐵道の 經營이 朝鮮總督府 에 還元됨에 따라 鐵道圖書館이라 改稱하여 鐵道局費 로 經營하는 한便 財團法人 鐵道教養助成會로부터 圖書의 寄贈을 받아 補強되었다.

1943年 12月 1日 朝鮮總督府 行政機構改革에 따라 交通局으로 名稱이 變更되어 交通圖書館으로 改稱하였다.

<解放後>

1945年 8月 15日 解放과 더불어 軍政이 實施되고 南

朝鮮美軍政廳運輸部 運輸圖書館으로 改稱하였다.

1946年 9月 11日 南朝鮮過渡政府가 생기게 되어 南朝鮮 過渡政府運輸部 運輸圖書館으로 呼稱되었다.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誕生됨에 따라 交通部 交通圖書館으로 改稱되었다.

1961年 10月 2日 交通公務員 教育院 職制가 公布됨에 따라 交通公務員 教育院 圖書館으로 改稱되었다.

以上은 우리 交通圖書館의 簡單한 沿革이다.

다음은 그 內容에 對하여 말씀드려 보기로 한다. 1945年 8月 15日 解放되기까지 總藏書量 23萬 7千餘冊을 保有한 圖書館으로 現 國立中央圖書館·서울大 中央圖書館과 더불어 國內 三大圖書館의 하나이며, 工學系圖書는 國內唯一을 자랑했고, 模範圖書館으로서도 그 이름이 높았다.

이 23萬餘冊을 6·25前까지만 해도 고스란히 保存하고 있었는데 아깝게도 6·25動亂으로 龍山一帶가 B29의 그 어마 어마한 爆擊洗禮를 받는 바람에 3層 벽돌집만 앙상하게 남고, 圖書를 비롯한 一切의 備品이 完全히 타버리고 말았다.

以後 釜山避難當時 우리 圖書館職員들이 배고픈 허리를 움켜쥐고 釜山埠頭 가에서 勞動 품팔이로 延命해 가면서 市中의 古本을 한두冊式 모아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오늘날 우리 圖書館의 再出發의 基礎가 된 것이다.

現在 겨우 3萬餘冊을 保有하고 있으며, 本廳舍인 3層 벽돌집을 修理해서 그 3層만 우리 圖書館이 쓰고 餘는 鐵道廳 事務室로 빼앗기고 있다.

앞으로 우리 圖書館이 제 구실을 하려면 이 建物부터 먼저 確保를 해 놓아야만 일이 되겠는데 現狀態로서는 鐵道廳의 本廳舍가 워낙 좁아서 到底히 廳과 對決하여 우리 圖書館 本建物을 내 놓으라고 할 形便은 되질 못하고 있다.

또 한가지 難點은 適正人事가 問題인데 이것도 直接 人事權을 圖書館長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므로 일을 圖書館長 理想대로만 推進해 나갈 수 없는 것이 큰 缺點이 아닐 수 없다.

한 官廳이나 한 企業體에 附設되어 있는 圖書館이 發展하려면 그 官廳이나 그 企業體의 存立目的과 對決하면서까지 發展할 수는 到底히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어려운 難點이 있다.

交通部全體의 圖書館

우리 圖書館이 創設當時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6年前에는 日帝가 한창 得勢하여 大陸侵略을 일삼던 時代라 鐵道는 그 侵略의 앞잡이로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였기 때문에 少少한 豫算에 拘碍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日政의 移民政策의 一環으로 數많은 日人 靑少年들을 韓國鐵道從業員으로 募集해다가 이들을 再教育하여 全線 坊坊曲曲에 配置시켰고, 그 큰 鐵道從業員 教育事業의 一翼으로서 우리 圖書館도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初代 圖書館長으로 林靖一이란 日人이 圖書 不過 7千冊을 밀친으로 當時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圖書館으로 京城鐵道學校內에 設置하여 出發을 보았음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다.

지금 新龍山에 자리잡고 있는 鐵道廳 本廳舍인 2層 붉은 벽돌집이 本來는 鐵道學校로 지어진 집인데 그 옆의 一部를 圖書館建物로 쓰면서 우리 圖書館이 시작 된 것이다.

그後 다시 그 옆에다 本 圖書館 建物를 增築한 것이 現在 우리가 들어 있는 3層 붉은 벽돌집으로 이만하면 지금으로도 꽤 크고 의젓한 建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林靖一이란 初代 圖書館長이 圖書館創設 當時부터 無慮 20餘年 동안을 우리 圖書館과 苦樂을 같이 하면서 自己가 後任者인 右野健雄이란 사람에게 引繼할 때까지 20萬冊의 藏書와 3層建物인 新館과 온갖 알맞은 備品들과 職員 40名이라는 赫赫한 業績을 남겨놓고 鐵道本局으로 轉出되었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當時 日政의 韓國鐵道를 통한 侵略政策이 얼마나 活潑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이러한 好景氣의 틈을 타서 우리 鐵道圖書館이 國內 屈指圖書館의 하나로서 그 面目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圖書館이 現位置에서 그 發展을 꾀하려면 鐵道廳이 指向하는 目的과 우리 圖書館의 發展要素와가 어느 意味에서든지 그 軌를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하여 鐵道本廳 幹部들에게 充分히 理解納得이 可能하도록 行動해야 될 段階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은 쉽지만 그 實現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隘路가 겹치고 겹쳐 있는 것이다.

이 中에서도 가장 決定的인 隘路는 우리 圖書館이 鐵道廳內에서 하나의 獨立機關으로 그 獨自의인 發展策을 摸索推進할 수 있는 位置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交通公務員 教育院長이라는 한 機關의 補助機關으로서 教育院長의 指揮監督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넓은 意味에서 보면 勿論 같은 教育機關이므로 이러한 體制도 何等 外面上으로는 矛盾된 點이 없는 것 같지만 實質의으로 그 內幕을 들여다 보면 이 兩機關의 單一體制란 全然 그 意義를 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交通圖書館과 같이 交通部나 鐵道廳 全體

를 奉仕對象으로 하는 機關에 있어서는 더 말할 餘地도 없는 것이다.

우리 交通圖書館의 本質을 따져 본다면 一般 大學圖書館이나 他 公務員教育院 圖書館과 같이 學生이나 教授들의 研究機關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交通部와 鐵道廳의 約 3萬名에 가까운 職員들을 相對로 하는 交通部內의 公共圖書館과 같은 役割을 하는 것이 그 目的인 것이다.

交通部和 鐵道廳의 業務나 技術向上을 爲한 資料提供處로서의 役割과 同時에 全國 坊坊曲曲에 빈틈없이 펼쳐 있는 이 鐵道網에 從事하는 全 職員들의 資質向上과 一般教養 乃至는 레크리에이션에 隨時로 應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과 같은 役割을 하는 것이 우리 圖書館의 職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圖書館은 教育院長 傘下에 所屬시켜서 그 院長의 規制를 받게 할 것이 아니라 鐵道廳長直屬下에 鐵道廳의 目的하는바에 直接 隨應해 나가면서 廳長을 直接 補佐하도록 해야만 그 存立目的에 附合하는 合理的인 運營이 이룩될 것이다.

이것도 理論은 勿論 不足한대로 위와같이 어느程度 納得이 가도록 說明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實現에 있어서는 적어도 政府機關에서 職制를 하나 늘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微妙한 人情機微가 그렇게 順坦하게 一瀉千里로 誤解없이 進行될 수만도 없는 것이 現實이다.

設使 내가 教育院長이라 할지라도 自己 手下에 있는 圖書館이 自己의 權限範圍를 벗어나서 따로 獨立한다는 것이 그리 탐탁할 리는 萬無한 것이다.

萬不得已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欣快할 수는 없다.

여기에 圖書館長의 處身問題가 참 어려운 것이다.

新規採用만

다음은 官廳으로서의 圖書館에 있어서 人事의 適正 合理化 問題는 極히 亂脈을 이루고 있다는 點이다.

現在와 같이 職種이 細分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交通部內에서 서로 人事交流가 自由스럽게 되어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매마르고 勢力없는 職場일수록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人之常情일 것이다.

좀 흥청거리고 勢力도 있고 한 자리는 누구나가 血眼이 되어서 競爭이 이만 저만 아니고, 그러다 보거나 自身을 비롯해서 우리 圖書館과 같은 자리에 밀려오는 親舊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生存競爭에 敗北한 落伍者들이 들끓었다,

이 落伍者들의 貯藏所 乃至는 待期所化한 圖書館이고 보니 거기에 무슨 適材適所의 人事配置가 어찌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볼 수 없는데가 圖書館인 것이다.

만 곳은 모르겠으나 우리 交通圖書館의 解放以來의 歷史는 이러한 人事上의 被害處로서의 位置를 조금도 脫皮 못하고 그 惡循環의 繼續인 퇴몰의 歷史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館長을 비롯한 全職員들이 무슨 일에 對한 熱意가 있었을 것이며, 거기에 또한 무슨 創意나 圖書館精神이니 하는 따위가 조금이라도 싹터볼 겨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圖書館의 一大危機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危機를 어떻게 하면 謀免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日政時代의 林靖一 圖書館長은 40名의 圖書館職員을 確保했었으나 單 한 사람도 新規採用以外에는 받질 않았다는 것이다.

만 職場을 거쳐서 圖書館에 오는 사람들은 圖書館에 와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때가 묻지 않은 新規採用者를 圖書館의 立場에서 圖書館精神에 立脚해서 단단히 訓練을 시켜야만 館長이 意圖한대로 館長의 理想대로 圖書館의 모든 일을 成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模樣이다.

그때와 지금과는 勿論 그 리더쉽에 있어서 根本理念부터가 다르지만 이 林館長은 徹頭徹尾 強壓의인 獨裁를 썼다는 것이기도 하다.

甚至於 말을 안들으면 때리기까지 했더니 그 獨裁가 어느 程度였다는 것은 能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 指導方法의 옳고 그른 것은 여기서 論外로 하고, 林館長은 自己所信대로 人事政策을 써왔고, 또한 그 強力한 統率方法에 依해서 놀라운 圖書館發展을 가져왔던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여기서 내가 한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圖書館 人事政策에 있어서 新規採用以外에는 받질 않는다는 方法이다.

新規採用의 對象者는 勿論 圖書館學科出身에 局限하고 圖書館 일을 天職으로 알고 일할 사람만을 골라서 採用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매마침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이 公布實施中이며, 앞으로는 官廳에 있어서는 司書資格證을 가진 사람만이 圖書館에서 일 할 수 있도록 法制化한다는 消息도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圖書館에 있어서의 人事問題도

自動적으로 그 適正을 期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기는 한다.

이리하여 司書를 完全히 專門職化한다면 圖書館精神에 立脚한 圖書館業務가 제대로 遂行되리라 믿는다.

特殊報酬制度

세계로 問題되는 것은 司書職에 對한 報酬問題다.

이것도 法官이나 敎職者들과 같이 特殊報酬制度를 採擇하면 簡單히 解決될 問題라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는 總務處 關係者들의 司書職에 對한 充分한 理解와 圖書館事業에 對한 國家·社會의 使命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이 確乎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이 司書에 對한 認識이 極히 稀薄할 뿐 아니라 權力機關以外에 對하여는 空然히 白眼視하려는 傾向이 있어서 여러가지 難問題가 있으리라 믿으나 이러한 問題는 協會側에서 좀더 積極的으로 當局과 折衷하여 別途 報酬規定을 만들도록 努力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우리나라 公務員들이 어느 누구 하나 裕足한 生活를 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 司書職들과 같이 이렇게까지 매달라가지고서야 어떻게 살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最少限度로 밥은 먹을 수 있어야만 일에 對한 誠意고 圖書館發展이 고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公務員으로 있는 司書職이 全國的으로 따져보아도 그리 많은 數字는 아니다.

이 全員에 對해서 特殊報酬制度를 採擇해 보았든 그 豫算은 全體 人件費에 비해 아주 微微할 것이다.

이와 같이 過度한 豫算을 所要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程度 司書專門職에 對한 認識만 제대로 된다면 當局에서도 굳이 反對하지 않으리라 믿어지기도 한다.

問題의 焦點은 어느 程度의 熱意를 가지고 關係當局과 끈질긴 交渉과 折衷을 持續하느냐 하는 意志力의 強弱에 따라 일의 成·不成이 左右된다고 나는 믿고 있다.

勿論 協會側으로 보면 特殊圖書館은 어디까지나 各己 自己가 屬해 있는 機關의 附設機構이기 때문에 그 所屬機關 裁量에 依해서 云謂될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報酬問題는 公務員 全般에 걸친 共通의 問題이기 때문에 어느 한 圖書館이 나서서 熱을 올린다고 解決될 問題가 아니므로 各級 圖書館의 共通意思를 代表할 수 있는 協會側에서 總務處當局과 直接 맞

부딪쳐서 誠意를 다 한다면 期必코 成就될 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

부디 이 公務員인 司書職들의 苦衷을 살피서 協會側에서 努力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圖書館의 獨立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特殊圖書館에 있어서의 參考業務의 比重問題에 關해서다.

내 생각으로는 特殊圖書館에 있어서는 이 參考業務가 그 가장 中心體를 이루어야만 되리라고 믿는다.

어느 特殊圖書館이든지 그 圖書館이 屬해 있는 機關에 올바른 奉仕를 하려면 이 參考業務가 多角的으로 考察되고, 또한 高度로 熟達이 되어서 그야말로 가려 운데 손이 닿도록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 機關에서 알고싶어 하고 또한 調査를 要하는 問題는 어느 分野든지 그 大小를 不問하고 適切 圖書館에서 提供이 되도록 되어야만 참된 特殊圖書館의 存在意義는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좋은 例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在 國會圖書館과 같은 組織體系는 참 理想的인 形態라고 나는 생각한다.

워낙 圖書館界에 識見이 좁은 나로서 外國의 形態를 例로 들 수는 없으나 아쉬운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國會圖書館과 같은 組織體系를 가지기만 한다면 어느 程度 그 圖書館이 해 보고자 하는 일이 過히 支障없이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事實 圖書館 固有의 參考業務와 國會圖書館의 立法 調査局과 같은 組織에서 하는 그 業務內容과가 어느 程度의 差異와 區別이 있는지까지는 내가 여기서 밝혀 낼 수는 없으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參考業務라는 것을 아주 自由스럽게 解釋해서 이 立法 調査局에서 하는 일까지도 參考業務의 一種으로 取扱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廣義로 參考業務를 解釋한다면 우리 圖書館에 있어서도 이 立法 調査局과 같은 性質의 各 專門分野別 調査研究 데이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勿論 그 規模에 있어서는 課로 하든지 係로 하든지 各己 圖書館 自體의 크고 작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그러한 性質의 部署가 必要한 것이다.

우리 圖書館 같으면 運輸關係를 비롯해서 施設·工電·陸運·海運·航空·觀光等 各 分野別로 그 專門 調査研究를 圖書館資料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專門分野別 調査研究機構가 마련만 된다면 鐵道廳에 對해서도 그야말로 우리 圖書館의 役割에 對

하여 큰 소릴 쳐 가면서 일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現在와 같이 圖書館 自體의 自由스러운 活動마저도 어느 테두리 속에 꼭꼭 묶이어서 일을 하자니 도무지 어떻게고 움치고 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이디어고 恣意이고가 솟아날 수 있겠는가.

내가 現位置에서 다급하게 解決해야 할 일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于先 우리 圖書館이 좀 自由스럽게 活動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現在와 같이 教育院長 傘下에 隸屬되어 있을게 아니라 廳 自體에 直屬되도록 總力을 기우려 努力하는 일이다.

그래서 獨自의인 發展을 模索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餘他 問題는 모두가 다 이 가장 어려운 問題만 解決이 되면 漸進的으로 얼마든지 計劃을 세워서 推進 成就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簡單히 말해서 우리 圖書館의 當面課題는 크든 작든 間에 하나의 獨立運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圖書館이 그 지난날의 錚錚한 傳統과 歷史의 빛을 되 찾는 意味에서도 나는 이 問題를 하나의 使命感으로서 어떻게 하여서라도 成就해 놓아야 하겠다는 것을 이 4年 동안의 體驗에 비추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에 對한 沒認識

本稿를 맺으면서 協會側에 한번 더 괴로운 付託을 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이 매마르고 불쌍한 圖書館人들의 地位向上과 待遇向上을 爲한 母體와 先頭役割은 各種 圖書館人들의 意思結合體라고 볼 수

있는 協會側에서 勇敢하게 擔當하고 나서 주어야 하리라고 믿는 것이다.

내 經驗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도 그 難點의 核心이 되는 것은 政府側의 關係 當路職員들이 圖書館界에 對해서 너무나 情報에 어둡고, 또한 거의 無識에 가까운 程度로 認識이 없다는 點이다.

한 例로는 우리 交通公務員教育院에 2·3日 前에 總務處에서 監査를 나왔던 일이 있었다.

그때에 各課를 爲始해서 우리 圖書館問題도 自然言及되었던바 擔當 實務 監査官의 한분인 某 事務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언뜻 비친 일이 있었다.

『圖書館에서는 무얼 하기에 職員들이 열아무명씩이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어리벉벉했지만 過去 우리 圖書館의 歷史와 實績을 簡單히 例로 들어서 說明한 後, 다시 現在 우리 圖書館界의 趨勢나 使命感이나 乃至는 그 業務內容까지도 說明을 하고 싶었으나 워낙 時間이 制約되어 있어서 그것은 中斷되고 말았지만 이와같이 總務處 職員들이 認識하고 있는 圖書館은 書架에 冊이나 몇卷 꽂아놓고, 한 두명의 女職員이 앉아서 망이나 보고 있는 곳으로 錯覺하고 있는 것이다.

이 極히 素朴하면서도 또한 侮蔑의인 觀念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于先 깨뜨려 놓지 않고서는 일이 안될 것 같다.

그런 然後에야 비로소 무슨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우리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生生한 實情을 協會側에서는 再認識해 주시고 모든 面에 對處하며, 또한 많은 協助가 있으시길 빌어마지 않는다.

서울 市內에 계신 團體會員 諸位에게

本協會에 設置된 配付函에 圖書가 滿函이 되었아오니 早速히 引受하여 가지고 每月 一回씩은 꼭 協會에 들러서 配付函圖書를 引受하여 가지기 바랍니다.

事 務 局